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

김 성 욱

우리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하고 빛내어나가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중적영웅주의와 자기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제침략군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88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한것이다.

세계전쟁사에 위훈을 떨친 영웅들의 무훈담이 수많은 기록되어있지만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처럼 웅근 하나의 전쟁이 수령결사옹위전으로 되고 전선사령관으로부터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자기 수령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면서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그런 전쟁은 일찌기 없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항일혁명투사들, 지휘관들은 언제나 앞장에 서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했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전선사령관 김책동지는 중화, 상원, 강동일대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평양방위선을 구축해놓고 결사전을 벌리였다. 그때 김책동지는 인민군병사들에게 우리모두는 평양성을 지키는 창이 되고 칼이 되어 이 길바닥에 박히자고 하면서 만일 살이 찢겨 뼈만 남더라도 그 뼈에 불을 달아 원쑤들의 무리속으로 날아들자고 하였으며 자신이 앞장에서 평양방어전투를 마지막까지 지휘하였다.

우리 인민군용사들도 항일혁명투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투쟁은 최고사령부 친위중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바쳐 보위한 견결한 호위병들이였다. 그들은 어떤 특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것이 아니라 투철한 신념과 백철불굴의 의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호보위하였다.

주체41(1952)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곳으로부터 불과 20m도 되나마나한 갯도앞경사지에 불발폭탄이 박혔다. 그때 친위중대원들은 불뿜는 화점에 심장을 내대는 육탄용사가 되어 500kg짜리 불발탄을 바줄에 건 소나무목도채에 어깨를 들이밀고 골짜기를 따라 힘겨운 걸음을 옮겨 급한 경사지에 불발탄을 내던짐으로써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보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앞에 몸을 내댄다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용감한 친위대원들이 있는 한 적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최고사령부의 안전은 담보되어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작전적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어느 한 전선부대를 다녀오시던 겨울날 이른새벽이였다.

미제의 폭격기편대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자동차행렬을 향해 곧바로 달려들었을 때 친위중대원들은 네놈들의 총탄이 설사 세겹, 네겹의 강철판은 뚫을지언정 우리의 몸은 절대로 뚫지 못한다고 심장으로 웨치며 몸과 마음을 더욱 굳게 합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여 천년암반으로 굳어진듯 육탄성벽을 이룬 친위중대원들은 그대로 철벽의 성새였고 방패였다.

수령결사보위전은 혁명의 수뇌부가 자리잡고있는 평양의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투장들에서도 벌어졌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대공방어임무를 맡았던 근위 제19고사포련대 전투원들도 미제침략군 공중비적들이 무리로 날아들어 야수적으로 폭격을 감행하는 가렬한 전투환경에서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바라며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영웅적투쟁을 벌리였다.련대의 전투원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하늘을 지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주체41(1952)년의 어느 하루에는 적기 13대를 박살내는 전과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대공전투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특출한 공훈을 세운 근위 제19고사포병련대 1대대 1중대 군인들의 전투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녀성통신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휘통신을 보장하는 데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 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속에서도 녀성통신병들은 그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초소를 떠나지 않고 귀중한 전화선을 목숨으로 보위하기 위한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기본전화선 하나가 적의 파편에 뭉쳐 끊어진것을 발견한 녀성통신병들은 재빨리 끊어진 선을 이어놓고 폭격이 끝날 때까지 통신선 전구간을 지켜냄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통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내무기관 일군들도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는 계급적원썹들과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치렬한 계급투쟁을 벌렸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된 후 내무기관에 들어간 한 녀성일군도 그들중의 한사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울의 전선사령부에서 작전을 지휘하시던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 그는 담당구역에 대한 보위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던중 하수도로 들어가 전선사령부가 사업하고있는 건물밑에 시한탄을 장치하려던 3명의 간첩놈들과 전선사령부일대에서 준동하고있던 수십명의 반동놈들의 정체를 알아내어 모조리 체포하였다.

주체39(1950)년 여름 전선을 시찰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로부터 그의 투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가 희생을 무릅쓰고 많은 간첩놈들을 잡아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부를 보위한 영웅이라고, 보배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었으며 조국을 지키는 길은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한 길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고 육탄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수 있는것은 혁명의 수령을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있고 개인의 운명도 미래도 있음을 심장깊이 체득하였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견결한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친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무비의 조국수호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고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쳤다.

이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 투철한 조국수호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들어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날뛰는 오만한 적들과 맞서 영웅적인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한계렬영웅은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나의 고지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으며 강호영영웅은 생명의 마지막순간에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속으로 굴러들어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들을 소멸하였다. 간호원 안영애영웅은 전투임무수행중 한몸바쳐 동지들을 구원하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에 자기의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211고지전투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말라!》라는 구호밑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0(1951)년 4월 적의 대집단을 포위섬멸하는 전투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조국의 고지를 지키고 나의 고지운동의 첫 봉화를 든 한계렬영웅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공화국영웅칭호를 안겨주시고 그 모범을 본받아 나의 고지운동을 전인민군적인 대중운동으로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그리고 강호영영웅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을 높이 평가하시어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그를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강호영영웅을 따라배워 인민군군인들이 복수기록운동에 힘있게 떨쳐나섰으며 그 나날에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싸운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이 더욱 빛나게 되였고 이 운동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모범중대, 영웅들이 태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밑에 모범중대운동이 전군적으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주체42(1953)년 3월말까지 불과 1년사이에 398개의 모범중대가 육성되였고 수만명의 군인들이 모범군인으로 등록되였다.

모범중대창조운동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며 그들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한목숨 바쳐 받들어싸운 영웅적인인민군용사들이 있었기에 그처럼 어려운 전투마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었다.

후방인민들은 후방도 전선이라고 하면서 미제와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심정으로 전 시생산을 다그쳐 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전선작업반운동, 전선청년작업반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적기의 폭격으로 전기줄이 끊어지면 손으로 피대를 돌려 포탄을 깎았고 폭격속에서도 천을 짚으며 산골짜기에 소형용광로를 차려놓고 쇠물을 뽑았다.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은 미제의 맹폭격속에서도 파괴된 철길과 다리, 운수시설들을 복구하면서 전시수송을 보장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한치의 땅도 목이지 말며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많이 내자!》, 《파종도 전선이다!》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받들고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전시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선원호에 적극 기여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치열한 반제반미투쟁을 벌리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1950년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울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조국이 없이는 우리들의 운명도 찬란한 미래도 있을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